

전기용품의 올바른 사용방법

글·조정희 회장
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지회

※ 선택과 사용 :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

1. 전기의 역사 - 에디슨
2. 전기의 특성 - 문명의 이기(利器) - 습기/안전성 확보
3. 전기용품의 안전규격 - 국내규격 : 전기용품안전관리법
- 국외규격 : UL(미국), CSA(캐나다) 등
4. 전기용품의 선택(구입) - 제값
- 전자파
- 안전인증 확인필
5. 사용설명서의 독회(讀會) - 안전수칙/사전숙지
6. 사용(가전제품) - 대형가전 : 냉장고, 세탁기
- 중형가전 : 전기매트, 장판/요
- 소형가전 : 모발건조기, 전기다리미
7. 소비자보호 - 안전사고 : 인명피해/화재
- 리콜제도 : PL법(제조물책임법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)
8. 약세사리 - 콘센트
- 플러그
- 멀티탭
- 코드 등
9. 집 - 빈집 = 낮
- 가족 = 저녁(overload)
10. 승압 : 110V → 220V(60Herz)
11. 안전의식 - 상식/생활화
12. 국산품애용 - 수입제품(외제선호도)
- 수입선 다변화(2000년 7월1일부터)
- 불법/불량제품 A/S

전기용품사용시 간단한 안전상식을 숙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.

- 물이 묻은 손으로 전기용품을 만지지 말아야
- 문어발식으로 전기기구를 많이 꽂아 사용하지 말아야
- 외출할 때도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여야
- 전기제품을 구입시에는 사용하기 전에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.

-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

- 고발

13. 전기민주주의
- 쾌적한 가정에서부터
 - 삶의 질/행복도(幸福度)
 - 수신제가치국평천하(修身齊家治國平天下)

결 론

- (1)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명왕(T. A. Edison : 1847~1931)이 발명했다는 전기(電氣)야말로 고도산업 사회의 기폭제이자 우리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주는 소중한 원동력으로서,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잠시 도 전기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중차대한 자원이다.
 - (2) 그러나 자칫 방심할 경우 일순간에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. 전기용품은 문명의 이기(利器)임에는 틀림이 없으나, 잘못 제조되거나 잘못 사용하면 삽시간에 흉기로 돌변한다.
 - (3) 여름에 특히 장마철에는 누전 및 감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. 그러므로 간단한 안전상식을 사전에 숙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.
- 첫째, 가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는 물이 묻은 손으로 전기용품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. 전기밥솥, 세탁기 등 전기기기를 젖은 손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.
- 둘째, 콘센트(멀티탭)에 문어발식으로 전기기구를 많이 꽂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 사용할 때에만 꽂아 사용하고, 사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뽑아야 한다.
- 셋째, 사용하지 않을 때, 특히 집을 비우고 외출할 때도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여야 한다.
- 넷째, 새로운 전기제품을 구입시에는 집에 가지고 와서 그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.
- 다섯째, 가능하면 집안에 누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여 화재 및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누전차단기를 부착하는 것이 좋다.
- 특히, 태풍이나 장마철에는 누전의 가능성이 크므로 내실있는 점검 및 보수가 요구된다. 안전의 기본을 지키면서, 순간의 부주의와 착각이 재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.